

언론 사람

2018
vol.219

09

04

인터뷰

부산대첩기념사업회
김종대 이사장

09

세상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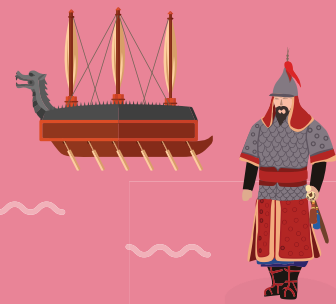
공간 탐식자와
공간 자본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오스트리아 'MQ Wien'

사랑





아테네 무명용사의 무덤

글 · 사진 |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오늘날 민주주의 원형을 만든 나라, 온갖 학문과 서양문화의 초석을 만든 나라, 그리스는 모든 장소가 역사의 흔적이며 이야깃거리가 가득한 나라다. 수도 아테네의 대표적 볼거리 중 하나는 무명용사들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근위병들의 교대식이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신타그마(Syntagma) 광장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광화문광장 정도라 할 수 있는 중심부 변화가다.

신타그마는 그리스어로 ‘헌법’을 뜻한다. 대통령 근위대인 ‘에브조니(Evzones)’는 185cm 이상의 건장한 청년만 선발한다. 빨간 베레모에 주름 잡힌 치마, 검은색 방울이 달린 신발이 눈길을 끈다. 에브조니란 이름은 오스만제국 지배 때 저항했던 산악 게릴라의 이름과 복식에서 유래했다. 이곳은 1456년부터 오스만제국의 지배에 항거한 독립전쟁과 1, 2차 세계대전 전사자들을 기리는 곳이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이들도 모셔져 있다. 무명용사의 무덤 뒷벽엔 페리클레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죽은 장병을 위한 추도연설문의 일부가 새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명연설문 중 하나다.

“아직 비어있는 관 하나가 있다.

무명용사의 관.

용감한 자들에게는 어디나 무덤이 될 수 있다.”



CONTENTS

2018 September
Vol.219



언론+



사람+

- 02 Close-Up
아테네 무명용사의 무덤
- 04 인터뷰
부산대첨기념사업회
김종대 이사장
- 14 NEWS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 15 따뜻한 아이디어
생각을 바꿔주는 쇼핑백

- 06 빅데이터 읽어주는 기자
“구글에 또 남아있게 됩니다”
- 07 언론법 이모저모
재판 공개가 부른 불행
- 08 드라마 속 숨은 이야기
드라마 속 의사
- 09 세상읽기
공간 탐식자와 공간 자본

- 10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지금 현재의 ‘취소가치’를
중시하는 ‘요즘 것’들
- 11 푸드텔링
지역의 추석음식
-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오스트리아 ‘MQ Wien’

발행인 양인석 | 편집인 권오근 | 발행일 2018년 9월 1일 |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이순신의 마음, 헌법의 정신과 같습니다.

이순신처럼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대중적인 인물은 흔치 않다.
영화에서, 소설에서,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은 구국의 영웅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헌법재판관 퇴임 후 고향 부산에서 이순신 정신을 전파하고 있는
부산대첩 기념사업회 김종대 이사진을 만나 이순신의 내면적 가치와
헌법정신의 연관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 | 홍보팀 남승균 팀장 사진 | 홍보팀 윤은자 에디터



Q |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부산대첩 기념사업회의 초대 이사진을 맡으셨습니다.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순신 연구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 지방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바로 올라간 경우는 제가 최초의 사례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 법조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지요. 그중에서도 부산대첩 기념사업과 이순신 학교 등을 통해 이순신 정신을 알리는 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순신 3대 대첩이라고 하면 한산도, 명량, 노랑해전을 꼽는데요. 그런데 임진년 10월 5일 부산포 해전 역시 왜군의 소탕해 전쟁의 흐름을 바꾼 큰 승전이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10월 5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정하고 있지요. 이순신 정신을 알리는 강연과 부산대첩 기념사업회 일정으로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Q | 법관 재직 시절부터 오랜 기간 이순신 장군을 연구해 오신 이순신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신데요.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면모에 매력을 느끼셨는지요?

A | 고대국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나라의 주권자는 왕이었습니다. 왕과 신료는 주권자 그룹을 형성하고, 그 밑에 백성이 위치하는 것이 국가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면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했지요. 이 조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

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왕에서 국민으로 주권자가 바뀐 역사적인 선언인 것이지요. 왕과 신료, 즉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따라 주권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전 이순신은 이미 스스로의 의지로 봉사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은 피난길에 마주친 백성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전쟁은 곧 끝나니 어떻게든 적에게 붙잡히지 말고 목숨을 보전하라"며 손을 잡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봉사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공직자들이 이순신의 정신을 본받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이순신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자를 양성하고 서울과 부산에 이순신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A | 일반적으로 이순신은 탁월한 전술가로 알려져 있지요. 거북선이나 학익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술은 기술입니다. 지금 거북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기술이라고 할 순 없지요. 기술자로서의 이순신은 흘러간 옛 사람입니다. 이순신의 기술 밑바탕에는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리더십의 원천은 이순신의 내면세계에 있습니다. 그 내면의 세계야 말로 4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유효한 것입니다. 저는 이순신의 내면세계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로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면적 가치를 우



김중대
부산대첩
기념사업회
이사장

- 부산대첩기념사업회 이사장
-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前 부산중재부 중재부장

리 세대에 전파하고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순신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 젊은 세대에게는 이순신 정신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A | 이순신의 내면가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눈높이에 젊은이의 눈높이를 맞추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의 관점으로 젊은 세대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의 반대말은 방관자입니다. 이순신은 왕이 주인인데 내가 왜 나서야 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이 땅은 내 땅이요, 왕의 백성이 아닌 내가 받들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관자가 아닌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임진왜란 첫 출전에 앞서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이순신은 “성과와 실패, 낯새고 둔한 것에 대해서는 신이 미리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도 합니다만, 결과로써의 성공에 집착하거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정성을 다하였으면 합니다.

Q | 언론중재위원회와도 인연이 있으신데요.

A | 1997년에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에서 중재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접점을 찾는 시간이었고, 언론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대첩 기념사업을 진행하면서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보다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해 이순신의 내면과 정신세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Q | 올해로 헌법재판소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회가 어떠신지요.

A |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기억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기 이전 헌법은 기본권 조항 등에 관해서 훈시규정적 성격의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고 비로소 헌법이 국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직접 구제할 수 있게 된 거죠. 헌법을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

A | 이순신 학교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살펴보면 선주는 선박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하고, 선장·선원과 해경은 국민들의 생명보다 본인의 안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순신 정신으로 우리의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또 다른 위험 속에 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작은 이순신들을 만들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합니다. 부산대첩 기념사업회에서도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발전보다는 정신적 가치의 발전을 위해 이순신의 가치를 빌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손자손녀를 비롯한 후손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

저서



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 있습니다(2004)

이순신의 탄생부터 노량해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명한 평전. 좌절과 역경을 이겨내고 한민족의 가슴에 성웅으로 자리잡은 이순신의 일대기를 충실하게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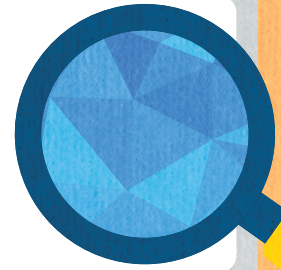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쳐놓아이다(2012)

이순신의 생애와 리더십을 다룬 책이다. 이순신의 리더십이 발현되어 완성되는 과정을 47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인격수양과 구국제민’을 위해 자력, 정직, 정성, 사랑의 4가지 내면가치를 통해 한결같이 노력해온 충무공 이순신의 사상과 정신을 만나볼 수 있다.

“구글에 또 남아있게 됩니다”

늘고 있는 ‘잊혀질 권리’ 요구들

김양순 | KBS 디지털뉴스팀장



“제 나이 58세입니다. 제 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재벌과 어떠한 금전적 관계도 없고, 상습적 마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렌지주스에 탄 0.05g 필로폰을 모르고 마신 것밖에 없습니다.
동영상을 영구 삭제해주시요. 아니면 구글에 또 남아있게 됩니다.”

언론사에서 종종 받는 요청이다.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본인과 관련된 보도를 지워달라는 거다. 이유는 다양하고, 납득할 만하다. 위 이메일을 보낸 이가 적시한 30년 전 뉴스는 실제로 지금 보면 경악스럽다.



〈KBS뉴스 (캡처)〉

[앵커]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애깁니다. (...)

[기자] 오직 돈과 성적 쾌락 추구의 수단으로 마약을 상용해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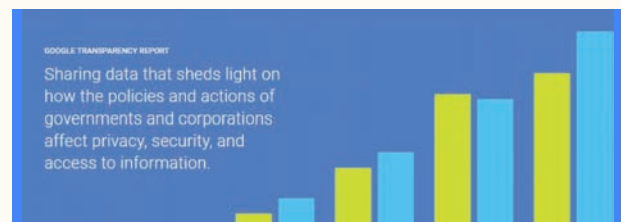
오늘 검찰에 구속된 사람들은 000, 000, 000입니다.

〈중략〉 KBS 뉴스 000입니다.

뉴스 영상에는 민낯의 여성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포승줄로 꽁꽁 묶여있다. 인권이라고는 눈곱만치도 고려치 않았던 1990년의 기록이다. 다른 민원들도 비슷하다. 흥포한 범죄자도 아닌데 실명이 거론된 점, 얼굴이 공개된 점, 오보, 과장보도 등이 뉴스 삭제 요청 이유다. 최근 이런 요구가 늘어난 건 KBS가 1987년부터 방송된 9시 뉴스 영상을 HD 화질로 복원해 디지털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구글 검색을 하면 전에는 나오지 않던 옛날 뉴스가 검색되니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는 호소다.

국내에선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이미 하나의 흐름이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이후, 프랑스는 2016년 3월 본인과 연관된 특정 검색결과를 삭제해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글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 3300만 원)를 부과하

기도 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중요하다”라며 불복해 항소했지만, 실제로 URL을 삭제해주고 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 (캡처)〉

구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면, 2014년 5월 29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구글에 검색 삭제 요청이 들어온 URL은 270만 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삭제 요청은 713,496건). 구글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43.9%) 100만 12,016개의 URL을 실제로 삭제했다. 삭제 요청 URL의 종류는 소셜미디어가 11.7%, 뉴스가 18.2%, 디렉토리가 18.7% 등으로 나타났는데, 페이스북의 경우 46,771개의 URL 삭제 요청 가운데 19,570개를 삭제했다.

물론 구글이 URL을 삭제했다고 해서 해당 뉴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언론사는 여전히 원본을 디지털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해 기록물로 갖고 있다. 문제는 어느 지점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가 가디언 등 유럽 언론들도 딱 부러지게 답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유럽공영방송 연합체인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는 최근 '잊혀질 권리'에 대한 준칙을 회원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기사 삭제 요청을 받은 언론사가 자사에서 기사 삭제는 어려우니 구글에 검색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라고 답변하자, “먼저 구글에 연락했더니, 구글 코리아에서는 ‘별거 아니니 해당 언론사에서 빼 줄 겁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구글이 한국 언론에 대해 갖고 있는 저널리즘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수준이 궁금해진다. 하지만 그 인식은 뉴스 삭제에 관한 국내 언론의 ‘원칙 없음’이 제공한 것은 아닐까. 🍌

* 구글 투명성 보고서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검색어 삭제” (검색일: 2018.8.)

URL: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eu-privacy/overview>

재판 공개가 부른 불행

김주연 | 변호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보다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선고되던 날도, 이정미 권한대행의 헤어롤이 장안의 화제가 됐다. 우리는 ‘얼마나 바빴길래 헤어롤만 것도 잊었겠나’라며 권한대행의 바쁜 업무를 십분 이해한 뒤, 이정미 권한대행이 워킹맘이라는 기사를 보고서는 무릎을 치며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자리까지 오른 훌륭함에 경외감을 표했다. 헤어롤을 만 이정미 권한대행 관련 기사를 두고 어느 누구도 중대한 나랏일인 탄핵 보도 분위기를 흐렸다면 뭐라 하지 않았다. 그저 소소하고 즐거운 에피소드였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재판 보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는 기사가 넘쳐났다. 안희정 전 지사 측 증언 보도는 흡사 소설처럼 찰지고 흥미진진했다. 이에 언론 보도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을 담지 못하고 언론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라며 자성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가볍디가벼웠던 언론 보도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피고인 측과 고소인 측의 증언 공개를 달리 판단한 재판부 결정도 문제였다. 이는 생각이다(편의상, ‘피고인’, ‘고소인’이라고 칭하겠다). 아마도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피고인 측 증언 신문은 모두 공개하되, 고소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인 측 증언 신문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런데 그 때문에 언론 보도는 출발부터 피고인 측 증언신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도 고소인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빼고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그러시죠”라고 하는 재판장이나 검사는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에서 일반 대중들은 피고인 측이 증언하는 고소인의 행동과 그녀에 대한 추측성 견해들만 들을 수 있었고, 정작 고소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구도 속에서 과연 균형 있는 보도가 가능할까? 보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려면 양쪽의 이야기가 모두 공개되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 비공개되었어야 좋을 것이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송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아예 법률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 공개의 원칙은 재판이 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사법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절대 원칙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심리는 비공개하고 선고만 공개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러나저러나, 결론적으로 재판의 공개 여부 결정이 1심 재판 결과 자체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야기 좋아하는 언론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여론에는 재판 공개가 그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은 공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문이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삶에 파문을 남기는 것이 비단 재판뿐일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일 계속되는 소란스러운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관련자들에게는 계속 생채기를 낸다. 공소사실과 무관한 많은 사담들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느낌들이, 굳이 보도되어 국민 모두가 이를 알 필요는 없었다. 언론사는 자극적인 보도를 절제하는 교양을 갖추지 못했고, 법원은 이러한 보도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성찰이 부족했으며, (부끄럽지만 나를 포함한) 대중들은 다른 이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는 뒷이야기를 지나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결론이 아름다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경우였다. 🍷

드라마 속 의사

유선주 | 칼럼니스트



*출처 : JTBC드라마 <라이프>

메디컬드라마 속 환자에게 감정 이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인공인 의사나 그의 라이벌도 아니고, 하필 환자라는 게 좀 난감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이의 이미지란 게 워낙 강렬한 탓에 이따금 환자의 입장이나 스스로 환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다 소스라치곤 합니다. 메디컬드라마에서 환자는 주인공 의사에게 하나의 사건이자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도구적 존재가 되곤 하죠.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의 손을 잡고 의지를 북돋우거나 신념을 불태울수록 환자의 운명에 드리운 불길한 기운은 짙어지게 마련입니다. 주인공 의사가 최선을 다한 이후 비통한 눈물을 흘릴 때, 극중 환자는 죽고 없지만 잠시나마 환자의 입장이었던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의사의 절망과 환자의 공포가 뒤섞이는 기묘한 기분이 되곤 하죠.

환자는 의사가 실수 없는 전능한 존재이길 원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다름 아닌 그 의사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명사로서의 '환자'가 아닌, 개별적 인간으로서 '나'의 공포를 이해받고 공유하고 싶은 심정이겠지요. 메디컬드라마 속 의사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궁금증, 그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의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메디컬드라마에서는 의사가 속한 조직으로 이야기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자존심과 출세욕이 대단한 MBC <하얀거탑>(2007, 2018)의

장준혁(김명민)은 의술과 신념 외에 병원 내 권력 구도를 고민하고, KBS <브레인>(2011)의 이강훈(신하균)은 수술실에서 '환자가 죽은 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등 교만함과 야심을 감추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MBC <뉴하트>(2007)의 흉부외과 의사 최강국(조재현)은 병원 조직이나 체계를 무시하며 '사람 살리는 의사'의 신념을 전면에 세우지만, 자신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환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자 환자를 본원으로 돌려보냈던 과거가 있는 인물이었죠. 도제식 수련 과정을 거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의 공통된 권위주의나 고집스러운 면모를 해체한 캐릭터는 MBC <골든타임>(2012)의 외상외과 최인혁(이성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아외과 병동을 무대로 한 KBS <굿 닥터>(2013)는 주로 의사와 환자, 병원 내 권력다툼에 집중하던 이야기를 의사와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 간의 관계까지 확장해낸 바 있죠.

이런 의사 캐릭터들은 인력과 기술, 환자가 집중된 종합병원이라는 무대 속에서 과별 특성이나 위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스템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라마는 조직 안에서의 개인이나 의사로서 직면하는 생명윤리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좋은 의사의 상을 탐구하기 때문에 선악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기도 하죠. 하지만 JTBC <라이프>(2018)에서는 이 판단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비의료인 출신으로 병원 경영과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총괄사장 구승호(조승우)는 이익만 앞세우는 악당 같지만, 은폐된 의료사고를 세상에 알리고, 병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도입하기도 합니다. 전작인 tvN <비밀의 숲>(2017)에서도 그랬듯, 이수연 작가는 개인의 신념이나 노력을 말하면서도 조직의 특성과 그에 속한 개인들의 한계를 짚어내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작가는 구승호 사장을 병원에 침입한 향원으로, 병원 영리화에 맞서는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예진우(이동욱)를 향체의 관계로 두고 면역반응을 살핍니다.

<라이프>는 기획 의도에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국내 최고 사립대학병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를 주인공으로 삼은 드라마들이 의사가 속한 조직과 대학병원으로 이야기를 확장했듯, 대학병원이 주인공인 드라마에서는 한국 의료현실 전반으로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 문제는 <골든타임>에서, 외부인사가 개입하는 병원 영리화는 <굿 닥터>가 다룬 바 있는데요. <라이프>에서는 훨씬 다층적으로 다뤄집니다. 진주의료원 폐쇄 등 공공의료기관의 현주소를 짐작할만한 언급도 종종 합니다. 동시대의 현실과 복합적인 맥락을 그에 걸맞게 풀어내는 메디컬드라마의 출현은, 그저 좋은 의사 나쁜 의사를 가려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

공간 탐식자와 공간 자본

손관승 |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We shape our building, thereafter they shape us"(우리가 건물의 모양을 만들지만, 그다음에는 그 건물이 우리의 모양을 만든다)

1943년 10월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영국 의회 의사당을 다시 짓기 위해 윈스턴 처칠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다. 건축가나 디자이너들 사이에 회자되던 이 말은 요즘 평범한 직장인들의 입에서도 자주 인용된다. 공간과 도시, 인간과 장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를 살고 있는 까닭이다.

멋진 디자인과 건축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경쟁력이어서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인다. 아무리 쇠락했다고는 하지만 로마와 피렌체, 밀라노에 여전히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은 그 도시가 갖는 탁월한 공간의 힘 때문이다. 베를린의 새로운 중심지 미테(Mitte) 지역에 세계의 힙스터들이 몰리는 것은 바로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공간이 있는 까닭이다. 이곳의 'Do You Read Me'라는 서점은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전 세계의 이름 있는 매거진을 모두 모아 두고 있다고 해서 공간 탐험자들의 성지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극도의 반일(反日) 감정이지만 한국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자주 찾는 여행지가 일본이라는 역설은 무엇을 말할까? 지리적 인 이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요즘 젊은 여행자들의 특징인 '공간 탐식(貪食)'적인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 다이칸야마에 있는 '쓰타야 서점'은 몇 해 전부터 '무지양품'과 더불어 한국 여행자들의 필수 투어코스가 되었다. <지적 자본론>으로 유명한 마스다 무네키 CEO 특유의 경영철학을 반영

한 곳으로 이곳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서점 안에서 다양한 문화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게 만든다. 신세대 소비자들의感性 요구를 파고든 성공전략이다. 미술관처럼 책방에서도 큐레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덤이다.

아사쿠사에 걸어갈 수 있는 동네인 구

라마를 찾아가 왜 이곳이 '도쿄의 브루클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블루보틀 1호점이 들어간 기요스미시라카와도 찾아가게 된다.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여행과 라이프스타일 잡지 '모노클' 도쿄점도 들린다.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커피브랜드 푸글렌(Fuglen)이 북유럽 디자인과 현대 일본건축 컨셉을 응용하고 있는지도 눈여겨볼 것이다. 숙소에 관심 많은 여행자라면 일본 특유의 캡슐호텔 '9h(Nine Hours)'의 놀라운 성장 속도를 눈여겨보게 된다. 이처럼 도쿄에 공간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도쿄 동쪽 지역이 활발하다.

재일동포 손정의 회장이 위워크(WeWork)라는 사무실 공유 스타트업에 44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 것도 그가 도쿄와 실리콘밸리의 문화에 익숙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뉴욕에서 시작한 위워크는 전 세계 40개 도시, 130개 지점으로 급속히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건물 한 채를 임대한 뒤 사무공간을 나누고 인테리어를 한 뒤 멤버십 형태로 재임대하는 사업모델이다.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유리 통로로 연결되는 2개의 건물로 이뤄진 본사 신사옥을 지어 화제를 모았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하이테크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아름다운 사옥 공간을 만들어냈다. 멋진 건축과 탁월한 공간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끼리의 소통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특정한 카페에 가는가? 커피를 마시기 위한 목적이 주일테지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약속의 장소, 혹은 잠시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한 워크스테이션의 기능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멋진 공간을 소비하고 싶은 것이다. 비주얼(Visual)한 시각적인 요소는 따로 통역이 필요 없다. 멋진 디자인과 인테리어야말로 그 자체로 위대한 자본이다. 공간이 자본인 시대에는 사무실의 공간 개념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샌프란시스코 우버 신사옥>



2018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

지금 현재의 ‘취소가치’를 중시하는 ‘요즘 것’들

박진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

하루종일 치열한 업무로 인해 녹초가 된 퇴근길. 한 20대 친구가 버스나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 만약 10년 전이었다면, 택시를 타고픈 마음을 꼭 참고 버스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렸겠지만, 지금의 20대들은 주저 없이 택시비를 지출하며 편안한 귀갓길을 택한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지난해 20대들의 영수증을 추적·연구한 결과, 가장 눈에 띄었던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 하루 동안 격한 전쟁을 무사히 치러낸 오늘의 영웅인 나에게 기꺼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귀가하는 것을 허락하는 요즘 20대들의 트렌드를 ‘취소가치’라는 키워드로 소개하고자 한다.

‘취소가치’란 휘발되어 버리는 가치를 더욱 취소하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지갑을 여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뜻한다.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거나, 일주일 내 특가 프로모션이 있을 때 항공권을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2017년 상반기 28.7%에서 2017년 하반기 50.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당장에 떠나고 싶은 여행을 마음껏 떠나는, 이른바 ‘즉흥족’이 밀레니얼 세대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지금 현재 내게 가장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Instagrammable”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애정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하다는 뜻의 신조어이다. 미국의 어느 디지털 미디어 기업에서 생일이나 기념일, 졸업/입학 때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의 유형을 분석했더니, ‘그래서, 그거 인스타에 올릴 수 있어요?’라는 기준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고 한다. 또 연령대가 어릴수록 응답률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한다. 어떤 재화가 가진 기능적 효용가치보다 그 재화의 인증을 통해 일시적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효용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무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기업들은 이른바 ‘피지털(Phygital) 전략’을 속속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콘텐츠 경험을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대로 구현해 심미적 판타지를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Physical+Digital’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심미적 공간에



서의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경험 자체를 디지털화된 콘텐츠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취소가치의 또 다른 예라 하겠다. 러블리한 핑크빛 컬러를 테마로 음식과 패션, 공연 등을 즐기는 뉴욕 Pinknic 페스티벌이 밀레니얼 세대의 최대 이벤트가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뉴욕 Pinknic 페스티벌〉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연이은 성공은 ‘복고(Retro)’가 밀레니얼 세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먹히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구식의 것들에 밀레니얼 세대가 늘 열광하는 이유 역시, 복고가 아련한 향수나 편안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낯설지만 일시적으로 효용이 높은 특별한 경험 중 하나로써 소구하기 때문이다. 최신 키보드의 편의성보다 둔탁한 기계식 키보드를 통한 일시적 경험의 특별함과 인스타를 통한 취소가치 충족을 밀레니얼 세대가 더 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못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복되고, 다원화된 가치 간의 역동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에겐 미래보다 현재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생존전략일지도 모른다. 나를 위한 불링블링한 일상을 브랜드의 소유 혹은 대리만족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과거의 브랜드 마케팅 시대는 이제, 기존의 취애/가성비 원칙을 깨뜨리는 즉흥적 판타지족의 다양한 취소가치를 충족시켜 주는 경험 마케팅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 🌈



지역의 추석음식

이용재 | 음식평론가

9월 23~26일은 올해의 추석 연휴이다. 송편처럼 전국구 추석 음식도 있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음식이 상에 오른다. 이를 한데 모아 추석 차례상을 차려 보자.

서울과 경기도

대체로 간소하게 차린다는 특징이 있다. 굴비, 참조기, 가지미 가운데 한 가지를 먹지만 전체로는 해산물의 비중이 적고 고기류와 녹두전이 차례상에 오른다. 주목할 만한 음식으로는 북어구이가 있다. 명태는 머리가 크고 알을 많이 낳는 생선이므로 자식들이 잘 크고 후손도 많이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눈알이 붙어 있는 북어가 잡귀신을 쫓아준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머리까지 붙은 통북어에 간장으로 간을 해 굽는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나오는 나물, 버섯, 감자, 고구마를 이용한 음식이 주를 이룬다. 메밀의 본고장 평창에서는 메밀총떡을, 바다와 접한 동해나 강릉에서는 명태포와 생선전을 구워서 낸다. 소금간을 한 가지미, 방어, 대구 등의 생선에 석이버섯채와 실고추를 곁들여 얹어 통째로 찜내기도 한다.

경상도

바다를 면하고 있는 지역인 경우 조기, 민어, 가지미, 방어, 도미 등 어패류를 먹는다. 독특한 음식으로는 돔배기가 있다. '토막 낸 고기'라는 뜻의 돔배기는 참삼어의 고기를 소금에 절여 2~3개월 숙성시켜 만든다. 한편 안동을 비롯한 영덕 지역에서는 '글월 문(文)자'를 쓰는 문어를 통째로 찜 차례상에 올린다. 고춧가루를 넣고 만드는 식혜 또한 안동의 전통적인 추석 음식이다.

전라도

대표 음식인 흥어는 찜이나 포, 회 등으로 조리해 올린다. 물론 방어와 가지미를 먹고, 갯벌에서 나오는 낙지와 꼬막 등도 올린다. 전라남도에서는



〈서울·경기〉북어구이



〈강원도〉생선전



〈경상도〉문어



〈전라도〉꼬막



〈충청도〉버섯전



〈제주도〉굴

주름이 깊고 선명한 참꼬막을 양념 없이 데쳐서 차례상에 올리는데 이를 '제사꼬막'이라고 부른다.

충청도

위로는 경기도, 동쪽으로는 내륙지역, 서쪽으로는 바다를 면한 충청도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음식을 올린다. 경상북도와 인접한 지역은 대구포와 가오리포를, 호남지방과 인접한 지역은 말린 흥어, 방어, 가지미 등을 올린다. 바다가 인접하지 않는 내륙지역은 배추전, 버섯전, 무적 등 전과 부침류를 올린다. 충청도만의 차례 음식으로는 통째로 삶은 닭 위에 계란지단을 올려 만드는 계적이 있다. 원래 꿩고기로 만들었으나 귀해지면서 닭고기로 대체해 명맥을 이었다. 도라지, 파, 고기를 길게 썰어 양념한 뒤 북아 꼬치에 꿰 향누름 적도 충청도만의 추석 음식이다.

제주도

제주도에서만 잡히는 옥돔, 전복, 갈치 등의 어류를 먹는다. 기후의 산물인 굴, 파인애플, 바나나 같은 열대과일을 올리기도 한다. 한편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므로 보리빵을 올렸던 풍습을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 돼지가 많으므로 산적 또한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로 만든다. 차좁쌀로 만든 오메기술이 차례상에 오른다.

북한

북한의 대표 추석 음식은 석탄병이다. 맷살가루와 감가루를 반씩 섞어 녹두가루 고물을 묻혀 만든다. 흥시를 끓여 체에 내린 후 찜통에 찜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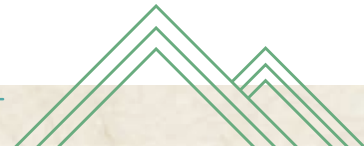
든 '감단자'도 있다. 평양에서는 찹쌀과 엿기름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지져 만든 노치를 먹는다. 한편 차례상에는 저장성이 좋은 배추나 무로 부친 적을 주로 올린다. 황해도 지방에서는 찰떡을 올리기도 한다.

간도

연변 자치주의 조선족은 중국 중추절 풍습을 따라 중국 남송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월병을 먹는다. 월병은 밀가루 위주의 반죽 속에 팔소나 말린 과일 등을 채워 구운 과자이다. 떡도 송편 대신 명절, 결혼, 생일상에서 빠지지 않는 찰떡을 먹는다.

송편

앞서 언급했듯 송편은 전국적인 추석 음식이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대체로 북쪽 지방의 송편은 크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데,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는 반달 모양의 일반적인 형태를 작고 예쁘게 만든다. 강원도에서는 많이 나는 도토리나 감자녹말로 송편을 만들어 살짝 투명한 데다가 더 쫄깃하다. 강남공을 소로 넣고 손자국 모양이 나도록 꼭꼭 눌러서 만든다. 충청도에서는 높은 호박을 썰어 말렸다가 가루로 만들거나 찐 호박을 으개 맷살가루와 섞은 호박송편을 만든다. 경상도에서는 맷살가루와 칠가루를 섞어 뜨거운 물로 반죽해 송편을 만든다. 전라도에서는 치자, 석, 송기, 포도, 오미자즙 등을 넣은 알록달록한 꽃송편이 있다. 전라남도 영광, 고흥 등에서 먹는 모시임 송편도 있다. 🍡



음악의 도시 빈(Wien), 클림트로 유명하지만 고수들은 새 예술단지 MQ에서 즐겨요

이영란 | 미술 칼럼니스트 / 뉴스핌 편집위원

*사진제공: MQ(MuseumsQuartier)

사랑하는 연인이 뜨겁게 입 맞추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잘 아시지요? 오스트리아를 찾은 여행객들은 이 걸작을 보기 위해 너무나 빈(Wien)의 벨베데레궁을 찾습니다. 화집에서나 봤던 그림을 직접 감상하려는 이들로 전시장은 늘 인산인해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클림트의 황금빛 회화는 천재의 역량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주제로 쓴 논문이며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편이 넘고, 그림에서 파생

된 아트상품도 어마어마하다니 예술의 파급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수백 년 동안 대제국의 수도였던 빈은 유럽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였기에 찬란한 유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슈테판 대성당, 유럽을 호령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호프부르크궁과 여름 궁전인 쾰벤룬궁, 오페라하우스가 그것입니다.

참, 올 들어 이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힌 것 아시나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란 분석기관이 전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빈이 1위를 차지했다네요. 의료, 교육, 인프라에서 최고점을 받은 빈은 작년부터 대(對)테러 보안을 강화해 멜버른(호주)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유럽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은 거죠. 참고로 서울은 59위였답니다.

그렇다면 빈 시민들은 어디서 여가를 즐길까요? 관광객들이 벨베데레궁과 성당을 순례할 때 시민들은 '무제움스-카르티어 빈'(Museums Quartier Wien 약칭 MQ)을 찾습니다. 뮤지엄단지인 이곳에 가면 없는 게 없고, 각종 프로그램이 열리니 인기가 있을 수밖에요.

빈을 가로지르는 도나우강 인근에 위치한 MQ는 미술을 중심으로, 음악·무용·디자인·사진·건축·영화 등을 망라한 예술플랫폼입니다. 면적은 무려 9만m²(2만 7000평)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3배쯤 되네요. 18세기 이곳에는 빈 황실의 승마장과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마리에 수억, 수십억 원



1 바로크 건축과 초현대식 건축이 어우러진 빈의 뮤지엄단지 MQ. 시민들이 편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2 레오폴트 미술관에서 관람객이 에곤 쉘레의 회화를 감상하고 있다.

을 호가하는 명마(名馬)를 돌보고 그 말을 탔던 곳이지요. 황실 전용시설이어서 클래식한 건축이 세워졌는데, 길이 400m에 달하는 정면의 바로크식 건물은 1725년에 건립됐습니다. 1713년 카를 6세의 명에 따라 건축가 피셔 폰 에를라흐가 지었지요. 1850년대에는 겨울승마장이 추가됐고요.

이후 20세기 들어 박람회장으로 활용되다가, 198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의 근대와 현대미술을 함께 선보이는 뮤지엄단지(MQ)를 조성하자'고 조례를 바꿨습니다. 건축은 오르트너(Ortner) 그룹이 맡았는데, 클래식한 옛 건물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마침내 2001년, 레오폴트 미술관(Leopold Museum)과 'MUMOK'이라 불리는 루트비히 재단 현대미술관이 좌우에 새로 들어섰습니다. 광장 중앙의 바로크식 건물은 내부를 고쳐 '쿤스트할레 빈'이라는 전시관으로 개조했지요. 결국 3개의 독립된 뮤지엄이 조성되며 MQ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뒤 공연장, 어린이미술관, 댄스 아카데미, 작가 스튜디오 공방 등 60개에 이르는 시설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다채로운 복합문화단지가 됐습니다. MQ는 젊고 생동하는 사이트를 지향합니다. 매주 각종 공연과 영화상영, 퍼포먼스, 패션쇼, 축제가 이어집니다. 빈 시민들의 결혼식도 열리고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어우러지고, 파격과 전통이 만나는 역동적인 곳이지요. MQ의 전시 및 프로그램은 최고 수준이어서 '음악의 도시'인 빈을 전 세계에 '미술의 도시'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MQ의 노른자는 단연 레오폴트 미술관입니다. MQ에서 가장 사랑받는 뮤지엄이지요. 뿐만 우윳빛 석회석으로 군더더기 없이 지어진 레오폴트 미술관은 오스트리아가 낳은 위대한 작가 실레, 클림트, 코코슈카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 5200점에 달하는 레오폴트 미술관의 소장품은 의사이자 아트컬렉터였던 루돌프 레오폴트 박사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것



3 오색의 형광등을 활용한 댄 플래빈의 작품이 설치된 MUMOK의 전시실

입니다. 레오폴트 박사는 스물두 살 때부터 50여 년간 수집했던 미술품을 공공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진정한 패트론이었습니다.

그의 컬렉션 중 200여 점에 이르는 에곤 실레의 유화와 드로잉은 단연 압권이지요. 각국의 뮤지엄들이 실레 전시를 열 때마다 레오폴트 미술관에 대여를 요청하곤 합니다. 레오폴트 미술관은 높이 24m의 중앙 공간을 1층부터 5층까지 시원한 아트리움으로 조성해 자연광이 은은히 들어옵니다. 밝고 경쾌한 데다, 작품 수준도 높아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어지는 곳입니다.

눈부시게 밝은 화이트 톤의 레오폴트 미술관과는 대조적으로 루트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은 진화색 현무암으로 외관을 마무리해 묵직합니다. MUMOK은 국제적인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미술관입니다. 지금까지 파블로 피카소, 알베르토 자코메티, 앤디 워홀 등 현대미술사를 장식했던 거장들의 전시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또 '현존하는 최고의 미술가'로 불리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특별전도 개최했습니다.

MQ단지 중앙에 위치한 '쿤스트할레 빈'은 대규모 기획전시를 개최하는 미술관입니다. 외관은 바로크풍으로 고전적인데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는 더없이 전위적이어서 흥미롭습니다. 과거 황실의 겨울승마장이 리모델링을 통해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담은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거죠. 이곳에서는 쿠사마 야요이(일본)

를 비롯해 루이스 부르주아(미국), 이자 겐츠켄(독일)의 대규모 작품전이 열렸습니다. 도발적인 퍼포먼스를 개최해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은 이탈리아 예술가 바네사 비크로프트가 누드 모델 45명을 기용해 펼친 퍼포먼스도 이곳에서 열려 큰 화제를 뿌렸지요.

한편 MQ 광장은 빈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찌든 피로를 씻어내는 힐링의 장소입니다. 광장에선 일 년 내내 라이브 공연과 클래식 연주회, 영화 상영회 등이 이어집니다. 또 놀이시설도 다채롭게 조성돼 어린이를 대동한 가족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엔치(Enzi)'라는 이름의 아웃도어 소파들이 광장 가득 놓여 데이트족을 비롯해 빈 시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름밤, 독특한 디자인의 소파에 누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대화를 나누는 이들로 광장은 밤을 잊습니다. 이 '아트소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매년 블루, 라임, 퍼플 등의 색깔로 교체됩니다. 예술품을 그저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함으로써 '예술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MQ가 추구하는 모토입니다.

게다가 MQ 광장은 24시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문도 없고, 담도 없지요. 입장은 물론 무료입니다. 빈을 찾으시게 된다면 MQ 광장을 꼭 둘러보셔요. 대낮보다는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어스름 무렵이 더 좋겠네요. 🌆

양인석 위원장 퇴임



8월 31일 사무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15대 양인석 위원장의 퇴임식이 거행되었다. 양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위원회가 질적·양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 모두의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위원장은 재임기간 중 법정 업무인 조정·중재 및 심의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조정사건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위원동정

◆ 황용석 위원, 인신위 산하 '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황용석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은 7월 30일 인터넷신문위원회 산하 기사심의위원회 기사·광고심의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기사심의위원회는 회원사의 보도 기사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 주정민 위원, 홈앤쇼핑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주정민 중재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8월 9일 홈앤쇼핑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윤리위원회는 분기별로 방송에 대한 윤리적 이슈와 각종 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정연우 위원,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 사회 진행

정연우 중재위원(충북중재부, 세명대 사회과학대학장)은 8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된 형태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 뉴스

◆ 2018년도 제2차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8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된 2주간의 예비법조인 연수가 마무리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27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언론법제 및 조정·중재에 관한 특강과 분쟁해결 실무체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의 주제에 대해 모의 조정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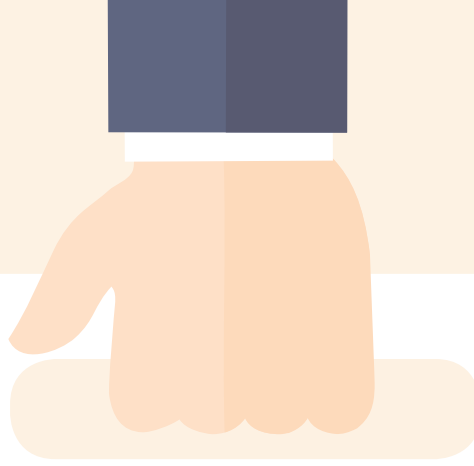
◆ 신규 직원 채용

위원회는 지난 8월 1일자로 4인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였다. 위원회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각 전형단계별 전형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근무부서	성명	임용일자
예산회계팀	박승규	2018.08.01
총무팀	홍준의	
교육팀	이진영	
연구팀	강다정	



따뜻한 아이디어



Give me your hand & Green Aid bag

생각을 바꿔주는 쇼핑백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브랜드의 로고가 프린트된 쇼핑백에 담아주기 마련인데요, 그 쇼핑백은 물건을 담은 수단이 아닌 걸어 다니는 광고판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업적 목적이 아닌 환경 혹은 캠페인의 목적을 띄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쇼핑백들이 있어 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동물보호 쇼핑백 Give me your hand



"Give me your hand(나의 손을 잡아줘)"라고 프린팅되어 있는 이 쇼핑백은 그린피스에서 제작한 것인데요, 쇼핑백을 들면 사람이 야생동물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기에 동물보호단체 가이아(Gaia)의 쇼핑백은 손잡이를 들면 거북이와 거위의 목을 잡고 있는 듯 보이는 디자인과 "이 거위를 고문하세요"라는 강렬한 문구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가이아에서는 자연과 동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장황한 문구가 아닌, 시선을 사로잡는 이미지를 통해 임팩트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메시지 쇼핑백 Green Aid



이번에는 환경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의 쇼핑백을 살펴볼까요? 그린에이드(Green Aid)라는 단체에서 만든 이 쇼핑백은 이색적인 물건이 달려있어 시선을 끌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류탄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비닐 봉지)이나 종이 쇼핑백 대신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을 수류탄 모양의 작은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워트있게 전달한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재활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재치있게 담은 다회용 쇼핑백도 눈길을 끄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쇼핑백을 만나보았습니다.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비닐 쇼핑백으로 인해 방대한 쓰레기 배출과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요즘, 한번 쓰고 버려지는 쇼핑백에 대한 생각의 전환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재탄생한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진지하지만 재치있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공모분야

〈기획논문〉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면적 접근 (연구제안서 제출 필요)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
(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

제출마감

〈기획논문〉

제안서 제출마감 : 2018년 9월 6일(목) 12:00까지

기획논문 제출마감 : 2018년 11월 7일(수)까지 (제안서 채택자에 한함)

〈연구논문〉

논문 제출마감 : 2018년 11월 7일(수)까지

제출방법

이메일(journal@pac.or.kr)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2018년 등재후보학술지 인정 평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될 경우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에 게재되는 논문은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인정됩니다.